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2 활동보고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2022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보고서

발행일 2023.05.25.
발행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편집/디자인 오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주소 (04136) 서울 마포구 대흥동 32-17번지 카리스장원빌딩 401호
전화/팩스 02-715-9984 / 02-334-9984
홈페이지 www.lgbtpride.or.kr
이메일 lgbtaction@gmail.com
SNS 페이스북 @LGBTQaction 트위터 @lgbtaction
인스타그램 @haengseongin 유튜브 @lgbtaction

목차 Contents

인사말 / 2

행성인의 원칙과 가치 / 4

2022 행성인 / 8

- 2022년 주요 활동 / 9

- 회원모임 및 교육 / 13

- 활동팀 / 16

- 소모임 / 18

- 연대활동 / 20

성소수자 이슈 속 빛난 행성인 / 27

살림살이 / 36

오늘을 지키는 당신 곁에 행성인,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 행성인은 25주년을 맞아 25주년 기념, 상임활동가 충원을 목적으로 후원사업에 집중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코로나 19의 끝자락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정치가 불러오는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행성인만의 역동을 펼쳐내고자 했던 한 해의 활동을 담습니다.

22년에 행성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상임활동가 4인의 사무국 구성을 안정화 하고자 모금 사업을 벌이는 한편, 회원들의 활동 참여를 넓히고자 하였습니다. 끼와 에너지로 충만했던 25주년 후원주점, 전장연과 함께 이상한 연대 행진단으로 참여했던 퀴어퍼레이드, 매월 25일에 맞춰 진행했던 정기회원모임, 이 시대의 이슈들을 배워 본 여름특강, 활력 넘쳤던 기후정의행진, 신입회원들의 참여가 돋보였던 송년회까지 이어지는 단체 행사에 회원들의 참여를 끌어올리면서 코로나 19로 침체되었던 분위기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현장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행성인은 '실천'과 '연대'라는 가치 안에서 더욱 빛납니다. 22년에는 보수정권으로 교체된 이후 반인권적 퇴행의 정책들이 쏟아졌고 이에 맞선 현장의 분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성인은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 대우조선해양 파업 투쟁, 전장연 지하철 시위 대응, SPC 농성 연대 등 차별과 퇴행에 맞선 투쟁 현장에서 싸우는 이들의 곁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올해는 더욱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가시화 하고 확장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됩니다.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도 이어지고 있고 혼인평등은 성소수자의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진과 함께 퇴행을 막는 움직임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 시기가 다가오는 후반기로 갈수록 더욱 함께 싸워야할 일들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가야할 방향에서 고개 돌리지 않으며 묵묵하게 행성인이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도 현장에서 빛겠습니다. 오늘을 지키는, 내일을 빛내는 행성인!

행성인 운영위원장 지오



내일을 빛내는 당신은 행성인



비전

행동하는 성소수자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가치

저항하고 행동하는 행성인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성인
평등한 공동체를 일구는 행성인

미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성소수자들이 존엄과 권리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저항과 연대를 일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고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제도와 문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누구나 행성인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들이 저항하고 투쟁해 우리 자신과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를 기억합니다. 성소수자의 삶이 들리고 보일 때, 일상의 차별을 드러내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가정, 학교, 직장을 비롯해 삶의 공간 곳곳에서 겪는 배제와 모욕, 차별을 감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10대 활동원칙

1. 우리는 이 땅의 권력구조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인권단체로서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양성애자 그리고 모든 유형의 성적 불평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전면적으로 대응한다.
3. 우리는 노동자, 여성, 이주민, 장애인, HIV/AIDS당사자, 난민, 아동, 청소년, 빈민 등 억압과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4. 우리는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의 모든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5.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들 간의 연대는 물론 국제 연대를 강화하여 전 세계 성소수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모든 유형의 소외와 계급, 계층, 성별에 의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비성소수자들과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활동한다.
8. 우리는 개인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며 커밍아웃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9. 우리는 다양한 성소수자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지지한다.
10. 우리는 개인의 성적 자율성을 존중한다.

평등한 공동체를

평등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를 만들기 위한 시작!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하 행성인)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부딪히는 곳이기에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기도 합니다. 원치 않게 정체성이 밝혀져 곤란한 경우가 생기거나, 소수자 비하적인 욕설을 듣게 된다거나,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반말로 훈계를 듣게 된다거나, 특정한 정체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을 한다거나, 원치않는 스킨십을 강요당하는 일들이 행성인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많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행성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았습니다.

-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부착해 놓고,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 시작 전에는 이 약속들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성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으나, 직접 해결하기 어려울 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지만, 인권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변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주장하기 위해 행성인을 찾아 다양한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등한 관계에서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면 좋겠지만 갈등과 부딪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약속은 토론을 통해 언제나 변경 가능합니다.

만들기 위한 약속

-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모임을 갖도록 노력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청소년, 채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임 공간에 신경을 씁시다)
- 처음 보는 사이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하고,
말을 놓을지 여부는 상대에게 먼저 물어보고 정합니다.
- 내가 누구인지는 본인이 제일 잘 압니다. 상대방의 정체성을 존중합니다.
(성별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성별정체성과 성적지향을 존중합니다)
- OO다워야 하는 건 이제 그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 정체성을 어디까지 공개해도 괜찮은지 묻고, 원치 않은 공개를 피합니다.
- 소수자(여성/장애/질병/나이/인종)비하적인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불편한 것을 표현하는 건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때 그때 표현하고 신뢰 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해결합니다.
이를 위해 불편한 것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만듭니다.
-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 모임에 새로 온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어울립니다.

2022 행성인

회원들이 함께하는 행성인!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성인!

2022년,
25주년을 맞이한 행성인의
다채로운 활동들!

2022년 주요 활동

[행성인 25주년] 오늘을 지키는 당신 곁에 행성인, 내일을 빛내는 당신은 행성인



행성인은 97년, 처음 광장에 무지개 깃발을 휘날린 이후 25년동안 성소수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저항과 연대를 주요 가치로 행동하는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회원들이 곧 행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회원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고민하며 활동으로 실현한 전업활동가들이 있었습니다.

행성인은 지금에 머물지 않고 더 크게 더 단단하게 활동하기 위해 2022년, 2명의 전업활동가를 추가로 총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성인은 4명의 전업활동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성인 전업활동가 4명 만들기 프로젝트>를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5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대외적으로 행성인의 25주년을 알리는 한 편, 내부적으로는 '25주년 대박 기원 회원번개'를 개최하여 25주년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성인 상임활동가 4인 4색' 카드뉴스 11편의 발행을 통해 행성인 4명의 전업활동가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과 앞으로 더 하고 싶은 활동을 보여주며 후원을 독려하였고, '동료활동가들이 전하는 행성인 25주년 축하메세지' 10편을 영상으로 제작 및 배포하여 연대의 메시지로 후원을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을 지키는 당신 곁에 행성인  내일을 빛내는 당신은 행성인



행성인 25주년 후원주점
후원할 결심

2022. 09. 17. (토)
쌀쌀맞은담 정동점
장소가 변경했어요!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38 지하 1층

후원계좌 | **신한 140-011-790824**
(예금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그리고 마침내, 9월 17일에는 행성인 25주년 후원주점 <후원할 결심>이 열렸습니다.

후원주점을 이 주 앞두고 급하게 장소를 변경하게 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당시 하이트진로 화물 노동자들이 조합원 집단해고와 손배소를 통한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이트진로 계열의 맥주만을 판매해야 한다는 기존 대관처에서는 후원주점을 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후원주점은 당장의 부족한 재정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행사이기도 하지만, 행성인의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행사를 이주 앞두고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성인'이라는 우리의 지향을 다시 함께 확인하며, 행사 장소를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열린 후원주점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해주셨습니다. 광장과 길거리에서 투쟁으로 만나온 동료부터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 이들과 걸음을 함께 하며 행성인 행사에 처음 방문한 분들이 행사를 찾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만났고 만나지 못했던, 그리고

만나야 하는 분들이 행성인 25주년을 축하해주셨습니다. 행성인만이 아니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행사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찾아주신 분들, 자리하지 못했더라도 저마다 서 있는 곳에서 축하와 격려를 전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행성인 25주년 슬로건은 '오늘을 지키는 당신 곁에 행성인, 내일을 빛내는 당신은 행성인'입니다. 행성인의 25년은 나의 삶을 나누고 당신의 삶을 배우며 함께 살아가기 위한 변화를 만들어온 행성인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싸우고, 토론하고, 서로의 일상과 시간을 채울 수 있는 행성인이 되겠습니다. 행성인을 오가며 주말 동안 한 자리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건배를 이어간 힘을 기억하며, 이후에도 변화를 위한 즐거운 행동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



행성인은 2022년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 전국장애인 철폐연대와 함께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을 꾸려 서울퀴어퍼레이드에 참여했습니다. 민주노총, 빈곤사회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청소년청년감염인 커뮤니티알,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인권영화제, 플랫폼C,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다양한 연대단위에서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행진단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과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요구를 담은 다채로운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행성인, 전장연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행진한 모든 연대단위와 참여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성인 여름특강



2022 행성인 여름특강은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성원으로 놓쳐서는 안 될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 1주차(8월 11일) : 그들만의 '공정' : 공정의 해체와 재구성 /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 2주차(8월 13일) : 과거의 나로부터 떠난다는 것 / 홍은전 (작가, 인권 동물권 기록활동가)
- 3주차(8월 18일) : 기후위기는 어떻게 성소수자를 관통하는가? / 이송희일 (영화감독)
- 4주차(8월 20일) : 퀴어의 서사적 상상력_성소수자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 김일란 (연분홍치마 활동가, 다큐멘터리 감독)

성소수자 노동권 토론회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커뮤니티지원사업>을 통해 성소수자 노동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에는 일터에서 커밍아웃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성소수자 노동자 집담회'와 성소수자 노동자가 일터 내 괴롭힘을 마주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노동단체 간담회'를 진행하고, <일터 내 괴롭힘과 성소수자 노동권 토론회 - 성소수자, 나답게 일할 권리!>를 통해 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성소수자 노동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소수자 노동자와 평등한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있는 직장 동료들이 필요함을 확인하며, 행성인의 앞으로의 노동권 사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세계에이즈의 날 기념 <Day With(out) Art 2022: Being & Belonging> 상영회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아트선재센터와 전 세계 HIV+ 아티스트들의 시각에서 HIV/AIDS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비주얼에이즈Visual AIDS와 협력해 <Day With(out) Art 2022: Being & Belonging> 상영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김재원작가가 선정되어 국내 첫 상영회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상영회 이후에는 국내외 HIV/AIDS 현황과 이슈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쇼를 가졌습니다.

회원모임 및 교육

정기 회원총회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는 행성인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행성인에서는 매년 초 총회에서 그 해의 활동목표와 활동계획을 의결하고 임원을 인준합니다. 총회의 의결은 의결권을 가진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2022 행성인 정기 회원총회는 2월 1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의 활동을 평가하고 2022년의 단체방향과 활동 계획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임원 인준과 함께 신규 상임활동가 인준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회원모임 디딤돌



신입회원모임 디딤돌은 함께 만나 서로에 대해 알아보고 행성인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딤돌 모임이, 여러분의 행성인 활동의 디딤돌이 되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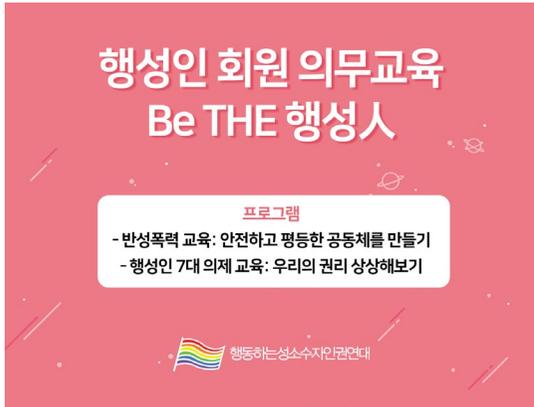
■ 누가 참여하면 좋나요?

- 행성인 모임 참석이 처음인 분들
- 행성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신입회원분들
- 신입회원분들과 인사나누고 싶은 기존회원분들
- 행성인이 궁금한 비회원분들을 포함한 누구나

■ 프로그램

- 아이스 브레이킹
- 다양성이 공존하는 공동체: 서로의 경험을 통해 체크해보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공동체'의 이야기
- 행성인 A to Z : 역사를 통해 살펴보는 행성인의 이야기
- 미니북 만들기: 책을 통해 들려주는 '행성인과 나'의 이야기

회원 의무교육 - Be THE 행성인



행성인 회원 의무교육
Be THE 행성인

프로그램

- 반성폭력 교육: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 행성인 7대 의제 교육: 우리의 권리 상상해보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의무교육은 단체의 활동과 지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과 성/평등 감각을 높이고자 진행됩니다. 행성인 정회원의 권리 중 '총회 의결권'과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획득을 위해서는 가입 이후 회원 의무교육을 필수로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 반성폭력 교육: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 행성인 7대 의제 교육: 우리의 권리 상상해보기

정기 회원모임



행성인 25주년을 맞이하여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회원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모에서는 지난 한 달 간의 행성인 활동을 공유하고 향후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나눕니다. 또한 매달 주제를 정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 2022년 월별 정기 회원모임 주제

- 3월: 5년 후 나는? 우리는?
- 4월: 추모와 기억의 시간
- 5월: 마음건강 돌보기
- 6월: 기후정의
- 7월: 여러분의 오롯한 바캉스
- 8월: 충청아파트 동인들의 추억
- 9월: 기후정의행진
- 10월: 행성인 커밍아웃데이
- 11월: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기념 토크쇼
- 12월: 송년회 대체



2023년 정기 회원모임은 매월 26일 개최됩니다. 26일이 주말일 경우 26일 전 주 목요일에 회원모임을 진행합니다.

*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행성인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송년회



행성인은 매년 연말이면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를 개최합니다. 2022년 행성인 송년회의 제목은 “내일을 빛내는 오늘은 송년회”였습니다. 25주년을 맞이한 행성인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2022 행성인 활동영상을 시청하며 행성인의 한해를 되돌아보고, 셋별상, 올해의 활동뽀뽀상, 올해의 작가,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요리왕, 올해의 후원 요정 등 22년 남달랐던 활동을 보여줬던 개인과 팀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활동팀

HIV/AIDS인권팀

HIV/AIDS인권팀은 한국 사회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 있는 HIV/AID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사회적 낙인에 대응하며, 감염인의 인권증진과 HIV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HIV/AIDS인권팀에서는 상반기 초국적제약회사와 HIV/AIDS사전예방요법인 PrEP 내부 세미나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프렙(PrEP)은 누구의 것인가?' 토론마당을 진행하고 퀴어퍼레이드에서 프렙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길러드를 규탄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아트선재센터와 협력으로 비주얼에이즈 상영회를 주관하고 내부적으로 HIV/AIDS인권팀 오픈하우스를 진행하며 질병 뿐 아니라 퀴어커뮤니티의 성적 실천과 위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소수자노동권팀



성소수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활동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평등한 일터를 꿈꿉니다. 성소수자만이 아닌 차별받는 노동자와의 연대, 성소수자 노동자 모임 지원,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합니다.

2022년 성소수자 노동권팀은 크게 두가지 방향의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소수자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글로 엮어 수많은 일터에 존재하는 성소수자 노동자를 드러내고 성소수자가 평온

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일터의 모습을 고민했습니다. 해고 불안정 여성 노동자 등 일터에서 성소수자 노동자와 동료가 될 수 있는 존재들과 함께 하기 위해 투쟁 농성장에 방문했고, 서로를 알아가는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고, 성소수자 노동자의 시선으로 이들의 투쟁을 기록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다수 팀원이 행성인 25주년 행사,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자원 활동가로 참여했으며, 이태원광장에서 열린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22.11.20)에서 공연 및 행진 사회, 발언자 등의 역할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외부 행사에서 팀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질 때, 행성인 안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운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트랜스젠더 당사자 토크쇼로 회원모임을 꾸려보았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행성인 안에서 트랜스젠더 회원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 줄 때, 트랜스젠더 서사가 풍성해질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인권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별이분법과 시스젠더중심주의로 점철된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 젠더퀴어들의 정치적 의제들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하는 행성인 내 활동팀입니다.

2022년, 행성인 25주년을 맞으면서 팀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신입회원이 늘었으며, 21년 대비 팀원 수가 증가하고 주도적인 분위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소모임

■ 행성인 소모임이란?

- 활동팀과는 다르게 취미활동 등 회원들의 관심사에 따라 모이는 그룹입니다. (소모임 예시: 책읽기/만들기/등산/영화/맛집투어 모임 등)
- 의무교육을 이수한 행성인 정회원 3인 이상이 모임 경우 새롭게 소모임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소모임은 연 1회 (정기 회원총회) 활동보고를 해야 합니다.

■ 소모임 등록 절차

- 연 2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간 - 매해 9월 1일, 정기 회원총회) 정식 등록 전에는 소모임(준)으로 활동 가능합니다.
- 등록 기간 전에 등록 신청품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 등록 내용: 소모임원(소모임 담당자 포함하여 정회원 3인 이상), 소모임 이름, 소모임 소개

■ 소모임을 등록하고 싶는데 정회원 3인 모으는 게 어려워요.

- 등록하고 싶은 소모임에 대한 소개와 홍보문구를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행성인 뉴스레터 등을 통해 함께할 정회원 모집을 홍보해드립니다.

※ 정회원 자격 및 소모임 참여 문의는 행성인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 행성인 사무국 lgbtaction@gmail.com / 02-715-9984

책읽기 소모임 완독

책읽기 모임은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뜻이 있어 온 행성인 회원들이 더 풍성하게 나누는 통로로 고안되었습니다. 사안과 이슈 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만남을 나누면서 행성인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에 책은 매우 좋은 도구이며, 우리를 더욱 더 가깝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2023년 시즌 5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관심 있는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행성인 몸짓패

행성인 몸짓패는 민중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행성인 소모임입니다. 몸짓은 한국 민중 투쟁의 역사에서 만들어진 투쟁에 연대하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평일 저녁에 서울 당산역 근처 연습실에서 춤 연습을 합니다. 투쟁 현장에 연대공연을 가기도 하고요.



이야기 나누기 소모임 "쫄긋"

행성인 이야기 나누기 소모임 "쫄긋"은 회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부담 없이 편하게 오고싶을 때 올 수 있는 모임이에요. 항상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구성원들이 제안하는 것이 있다면 다양한 활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회원, 처음 온 회원 모두 환영합니다.

큐리블

큐리블은 이분화된 성별규범에서 벗어나 모든 정체성의 사람들이 함께 스포츠(주로 풋살)를 즐길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합니다. 행성인 회원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며 함께 친목을 다지며 다른 퀴어 풋살 모임과 친선경기도 하면서 퀴어 스포츠의 확산을 도모하고 싶습니다. 2023년 정식 소모임이 되어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행성인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연대활동

3.8 여성의 날

3월 8일은 세계여성의날입니다. 행성인은 매년 3.8을 기념하여 성명을 내고 한국여성대회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2022년 제37회 한국여성대회는 보신각에서 열렸습니다. '모두의 내일을 위해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봄을 열었던 날입니다.



전장연 지하철 행동 지지참여



2022년 한해동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매일같이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와 이동권을 요구하기 위한 출근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행성인은 3월 30일 경복궁역에서 진행한 장애인권리예산 인수위 답변 촉구를 위한 1차 전장연 삭발투쟁 결의식에 참여하여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입니다. 장애인운동에서는 함께 힘을 모으고자 매년 420 공투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행성인은 매년 420 공투단에 함께하며 장애인인권 보장을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430 봄바람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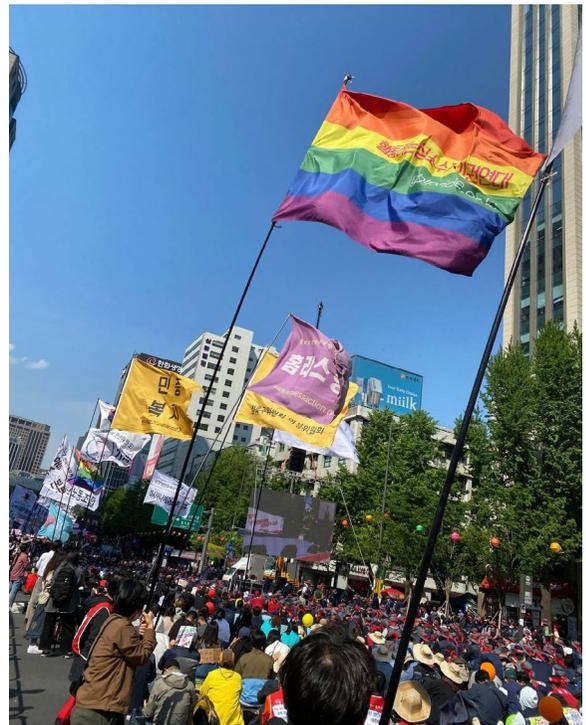


22년 3월 15일 문정현 신부님과 평화바람이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의 순례길에 나섰습니다. 생태, 평화, 평등, 존엄을 위해 싸우는 전국의 투쟁 현장을 만나온 봄바람 순례의 마지막날인 4월 30일 전국 각지에서 삶과 권리를 지키려 투쟁하는 이들이 한데 모여 다른 세상을 향한 흥겹고 결의에 찬 한마당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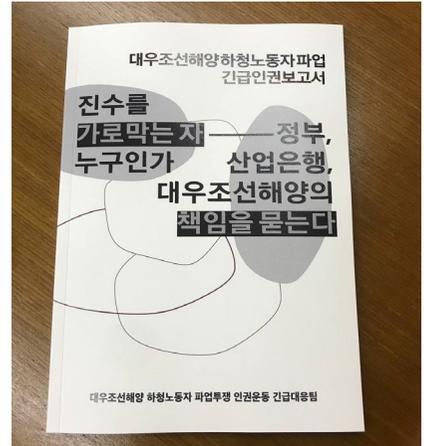
#지금 당장 기후정의! #차별을 끊고 평등으로! #전쟁 연습 말고 평화 연습! #일하다 죽지 않게 비정규직 없는 세상!

세계노동절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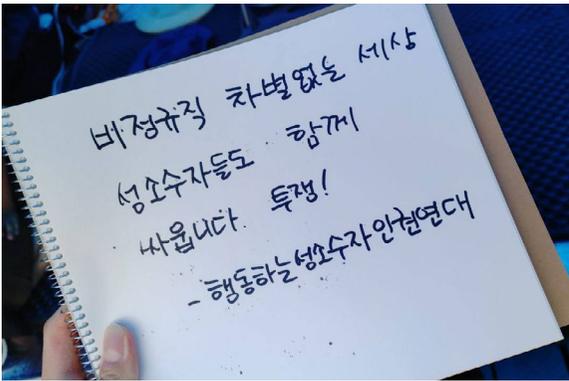
‘멈춰! 반노동, 옹어! 불평등’ 5월 1일 세계노동절대회는 ‘차별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불평등 체제교체!’를 구호로 전국각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행성인은 세계노동절대회에 참여하여 함께 남대문에서 광화문에 이르는 구간을 행진하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노동자들은 '더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다'를 외치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2022년 6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투쟁을 진행했습니다. 행성인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에 결합하여, 긴급인권보고서 작업, 투쟁현장 연대활동, 희망버스 참여, 투쟁기록 작업 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2019년 COVID 19 확산으로 청소를 해야 될 비행기가 없어지자 아시아나케이오는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했습니다. 소수 노조였던 민주노조를 지키던 사람들은 대책없는 무급휴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에게 아시아나케이오는 해고라는 답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에,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기 위해 거리에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아시아나케이오 복직 투쟁 승리 인권단체 문화제 '연결될수록 강한 우리, 함께 인권의 날개를 퍼자'를 함께 주관하며 조금씩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들과 인연을 쌓아 온 행성인은 2022년에도 함께 투쟁 천막을 지키고, 행성인 웹진 [랑]에 연대의 글을 기고하였습니다.

한국산연지회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성소수자 이야기마당



2020년 일본에 있는 본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국산연지회 노동자들의 오랜 일터였던 공장이 돌연 문을 닫기로 결정됩니다. 이에, 한국산연지회 노동자들은 위장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공장이 있던 창원부터 영업소가 있던 서울을 거쳐 본사가 있는 일본까지 국경을 넘나들며 가열차게 투쟁했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성소수자 노동자는 뉴스 한줄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나 일상에서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 노동자와 일본 산켄전기의 위장 폐업에 맞서 위풍당당 투쟁을 이어가는 한국산연지회 투쟁 노동자가 “보이지 않는 삶”을 넘어 함께 연대하기 위해 2022년 6월에 한국산연지회 노동자들과 이야기 마당을 진행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농성장 연대

2017년 파리바게뜨 제빵사와 카페 기사들은 인간답게 노동하며 행복하게 빵을 굽고 커피를 만들고 싶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상생하나 싶었으나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진급을 누락하고, 복직하려면 탈퇴해야 한다고 말하고, 매장 앞에서 몇 시간씩 지켜보며 탈퇴를 종용했습니다. 이에, 파리바게뜨 지회 임종린 지회장은 조합원들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53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밥을 끊었습니다.



빵 만드는 회사에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밥을 끊은 노동자가 나왔는데 SPC 기업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파리바게뜨가 소속된 SPC 기업에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 파리바게뜨 지회 농성장에 방문했고, 투쟁 문화제에 참석했고,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모임에서 SPC 제품 구매를 거부했고, 행성인 웹진 [량]에 연대의 글을 기고 했습니다.



기후정의행진

행성인은 2022년 924기후정의행진에 함께하며, '무지개빛 기후정의'라는 슬로건으로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 기후위기 대응, 소수자의 인권과 다양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행성인은 앞으로도 기후정의를 외치는 다양한 현장에 함께하며, 성소수자가 바라는 기후정의는 무엇인지 이야기 해나갈 것입니다.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



22년 가을, 신당역에서 여성노동자가 직장 남성 동료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충격과 공분 속에 신당역에는 그를 위한 추모의 자리가 마련되었고 한 달여간 매일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가운데 9월 29일에는 성소수자차별 반대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주관으로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사망한 여성노동자 추모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가 슬프고 단단하게 울린 날이었습니다.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 참여

상임활동가 호림은 11월 28일에서 12월 2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열린 2022 일가 아시아 컨퍼런스 ILGA Asia Conference에 참여했습니다. 2019년 서울에서의 행사 이후 3년만에 열리는 아시아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컨퍼런스였습니다.

호림은 아시아 각국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혼인평등 사전 행사 Marriage Equality Pre-Conference>에 참여했고, 프리덤투메리글로벌 Freedom to Marry Global과 한국의 동성혼 법제화 운동을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한 한국의 활동가들과 오랜시간 활동해 온 성소수자 활동가이자 현재 미국의 LGBT 인권 특사인 제시카 스텐 Jessica Stern을 만나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행성인이 주요하게 결합하고 있는 연대체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7년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 중 '성적 지향'을 포함한 7개의 항목을 삭제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만든 전국의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을 증진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구넷)

성소수자 가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적,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성소수자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연대 단체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반차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169개 시민사회 단체(2023년 3월 기준)가 모인 연대체입니다.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질병의 범죄화에 정면으로 맞서며 HIV/AIDS 인권활동을 전개하는 성소수자 단체와 HIV/AIDS 단체의 연대체입니다.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군성넷)

군대 내 성소수자 차별 사건에 대한 지원과 인권보호를 위해 정책 마련 그리고 군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넷)

한국사회 소수자 난민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공부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입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변희수 하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복직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연대체입니다.

▲ 그 외 행성인이 함께하는 시민사회 연대체

- ILGA World –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 정의 동맹
-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투쟁 연대활동(인권운동 긴급대응팀, 투쟁기록팀)
-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 본부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성소수자 이슈 속 빛난 행성인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이슈에
회원들과 함께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는 행성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행성인 활동가인 오소리와 행성인 회원이자 청소년 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의 활동가 소주는 동성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다면, 동성배우자에게 이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배우자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 정당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혼인은 남녀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행성인 활동보고서를 편집 중인 5월 현재, 1심 패소 이후 이어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의 상고에 따라 지금은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2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성의 사실혼 관계와 오소리-소주와 같은 동성결합 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동성결합 상대방을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성소수자도 결혼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혼인평등이 실현되는 사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꿈꾸며 행성인은 앞으로도 열심히 싸워나갈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불의 투쟁은 2020년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제정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싸워온 시간들에 닿아 있습니다. 21년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키고 도보행진,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2년에 들어서며 대통령선거에 맞춰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만들기 유세단으로 수도권 각 지역을 돌았고 국회 앞에서 릴레이 평등한기로 '평등이 곧 밥이다'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인 힘들로 4월 11일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46일의 단식투쟁동안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 11차례의 기자회견과 58회의 성명 발표, 813명이 참여한 비상시국선언, 23일에 걸친 동조단식, 매일 문화제와 집회까지 국회 앞은 차별금지법으로 북적였습니다. 국회 맞은 편 빌딩에 대형 무지개 현수막을 걸었던 일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운모으로 부딪혔던 그림자 시위도 떠오릅니다. 국회 앞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민주당사 점거, 동조단식 참여, 기자회견 진행, 지역구 의원 면담 등으로 함께 싸웠으며 여론조사 결과 80%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우리는 정치의 실패를 선언하며 농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제정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으나 한데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싸워 본 경험은 우리에게 남아 다음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 퀴어로드 - 우리 행진이 만드는 길

제14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은 코로나19 팬더믹 이후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인권포럼은 '퀴어로드 - 우리 행진이 만드는 길'이라는 제목 아래 총 세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에서 진행한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청년 성소수자의 다양한 욕구와 관련한 성소수자 단체들의 다양한 고민과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두번째 세션은 교회와 노동조합, 지역, 상담사라는 직역군, 대학 등 다양한 공간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해 온 이들이 각 단체의 활동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을 짚으며, 무지개행동의 지난 5년간의 대중운동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행성인 활동가들은 첫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에 참여했습니다. 오소리는 첫번째 세션에서 청년 성소수자와 만나 온 행성인의 경험과 활동회원 재생산과 관련한 단체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으로도 참여 중인 호림은 마지막 세션에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과 시민 인식의 흐름에 대해 발제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책임집행위원장인 지오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과 관련한 현황과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 -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의 연대



2022년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데이') 기념대회는 "싸우는 몸, 분노의 외침, 권리의 연대"라는 제목으로 아이다호데이를 앞둔 5월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아이다호데이 기념대회와 행진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는 첫번째 집회 행진으로 행사 전 경찰이 행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집회와 행진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행사 전부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당일에도 언론의 취재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기념대회에서는 성소수자의 삶과 권리, 연대를 주제로 한 뜨거운 발언들을 들을 수 있었고, 퀴어댄스팀 큐캔디와 장애여성공감 일곱빛깔 무지개합창단, 퀴어 풍물패 바람소리로 담긴 술의 공연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념대회 후 참여자들은 '우리의 행진이 세상을 바꾼다!, 우리의 외침이 시대를 만든다!, 우리의 싸움이 혐오를 끝낸다!'라는 메인구호를 포함해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구호들을 함께 외치며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녹사평역까지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2022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

2022년 7월 16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 부스에서 행성인은 성소수자 노동자 인증샷 캠페인과 앙케이트 조사를 진행하면서 일터 내 성소수자의 경험들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행진 트럭으로 참여하는 길리어드 코리아에 대한 항의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의약품 특허권 독점과 높은 약가를 유지하며 건강할 권리를 저해하는 초국적 제약회사의 횡포를 알렸습니다.





퍼레이드에서 행성인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이상한 연대의 행진단을 꾸렸습니다. '우리의 길은 투쟁으로 열어왔다. 함께 평등의 지하철을 타자!'를 구호로 내건 행진단은 폭우를 뚫고 길을 내며 힘차게 행진했습니다.



2022 제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



10월 1일, 제 14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대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일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퀴어가 대세(Queer is Trend)”였습니다. 2021년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며 제한된 인원으로 퍼레이드가 진행된 반면, 2022년에는 열린 광장에서 진행되며 더욱 ‘파워풀’하고 ‘귀어폴’한 축제가 되었습니다.

퍼레이드는 선두방송차량, 트랙퍼포머차량, 디제잉차량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행성인은 대구퀴어 조직위의 제안으로 디제잉차량에 탑승하여 디제잉에 맞춰 구호를 외치고 몸과 깃발을 흔들며 더욱 흥겹게 퍼레이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2022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

“무지개 인천 다시 광장에서!” 제5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10월 15일, 중앙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성인도 부스행사와 퍼레이드에 함께 했습니다.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지역 단체와 노동조합, 진보정당들이 어울러지는 지역의 흥겨운 축제였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행진한 현장은 어느 때보다 친근했던 인천 퀴어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2022 트랜스젠더추모의 날 집회 및 행진



매년 11월 20일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입니다. 2022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성인은 녹사평역 3번 출구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념 집회와 행사에 공동 주최 단위로 함께 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열린 이번 추모의 날 행사에는 '성소수자의 삶터에서 축제의 거리로, 축제의 거리에서 재난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이태원에서, 어디에서나, 누구나 안전한 일상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바라는 다양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발언과 공연을 듣고, 행진하며,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친구와 동료들을 기억하며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파매개행위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HIV/AIDS인권운동은 근래 에이즈예방법으로도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 폐지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법조항은 감염인의 성적 권리를 박탈할뿐 아니라 질병을 성적 보수주의를 강화하는 도구로 삼으며 감염인과 감염에 취약한 이들을 쉽게 범죄화하고 사회적 권리를 통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에는 전파매개행위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태도를 확인하면서도, 인권의 관점보다는 U=U의 의료적 사실에 입각한 기술적인 질문들이 대부분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추후 쟁점들을 정리하고 취약계층의 성적 권리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활동을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림살이

행성인은 활동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행성인의 모든 활동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힘,
당신의 참여와 후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행성인 후원 안내

회원가입과 후원으로 행성인이 만드는 변화에 함께해주세요!



행성인 정기후원

회원가입 및 정기후원: bit.ly/행성인회원가입

일시후원: 신한은행 140-010-905331 (예금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지금 새롭게 행성인 회원이 되신다면?

- 행성인 미니어쳐 깃발 3종 셋트를 선물로 드려요.
- 행성인이 주최하는 각종 교육 및 활동에 참여 가능해요.
- 다양한 성소수자 운동 관련 소식들이 가득한 '행성인 뉴스레터'를 메일로 받아 보실 수 있어요.
- 정기 후원 및 지정 기탁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 후원문의

- 행성인 사무국 02-715-9984 / lgbtaction@gmail.com



2022년 재정 결산

행성인 활동의 근간은 회원/후원회원들의 회비, 후원금입니다.

행성인은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월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 총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8%

13,466,261 원

기타수입 4%

6,778,952 원

25주년 후원사업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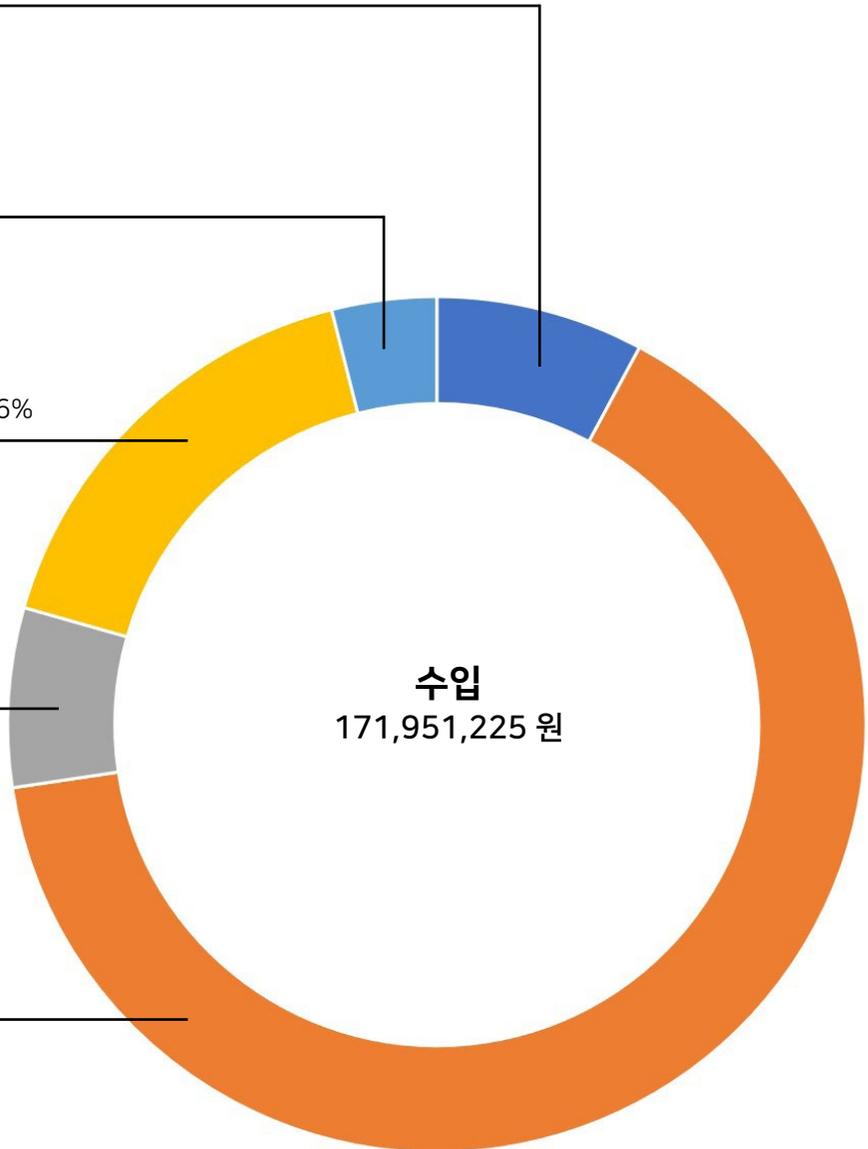
28,623,810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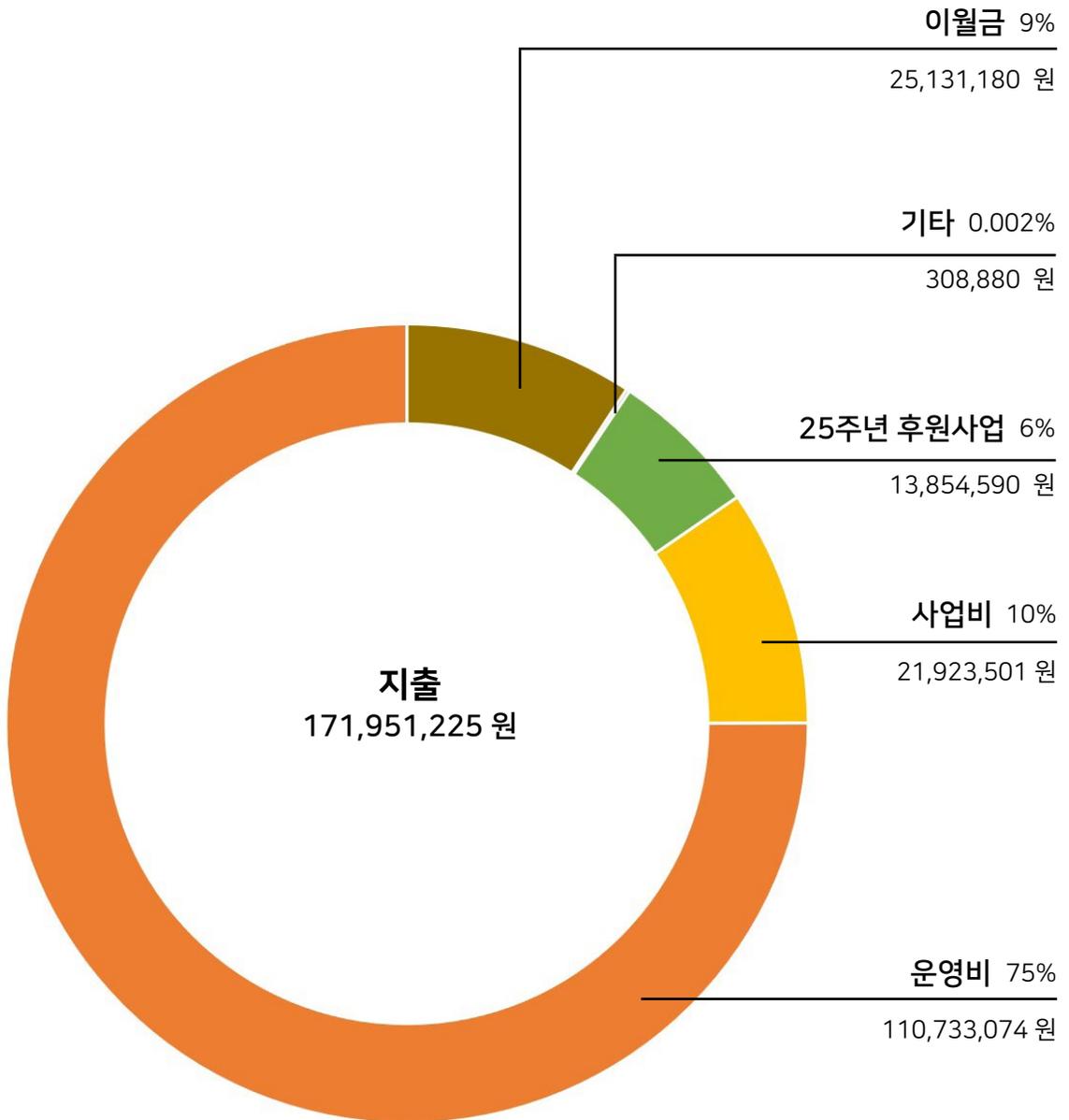
사업수입 7%

11,644,200 원

후원수입 65%

111,438,002 원





2022년 행성인을 후원해주신 분들

2022년 12월 기준, 749명의 회원분들이 CMS를 통해 회비를 납부해주고 계십니다. 행성인의 모든 활동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소중한 회비, 후원금이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더욱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CMS 정기 후원인

frances, KIMJUN, 2woorim, allmight, angnuite, Animamus, antiyoom, applebar, atemp, beige69, Bluesoda, bori, burningcat, Chiwawa, cho쇄, cjstnrud77, David Jeong, DODO, easyone1024, enjoy, erie, Francis, Funny Bagel, Good Voice, Gummybear , heymmm, HONDURA, iodine, JeJe, JH, Jinee, jiwooXAH, joyQ, Judahy Ruah, jussy, Ka, Kingdalcom, kirikou, kizmo , kkkkkk , lds, LEI 레이, leopard37, lepple99, leviat(레비), LivNLiv, LIZ HONG, M.T.I, MECO, ming, MP, Nathan Chang, nolja, oneless, PHS, pjh9086, prrmom, qorghrl1, rainbowbarley, rayjin, rider, rumour, Rury, Scheibe Rene, SentiTeaTree, sky0511, smallsteps, so0220!, Szpilman, TAMBLET, the jotter, tofu, Tuquoque , Weony, WK, wooz, yoy, zengyao, zuuzuu, 가쇼이, 가한, 간극, 갈릭, 갈팡질팡, 감자, 강*경, 강*구, 강*석, 강랑, 강산, 강조새, 거대한고양이, 건,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자, 겨울, 겨울빛, 견우, 겸다, 경성, 경환, 계림공, 고*갑희, 고*우, 고구마, 고난, 고미, 고양이탄탄, 고종우, 곤, 곰고미, 곰돌, 곰단, 곱*경, 곱*영, 곱*욱, 구*진, 국남이, 권*란, 권*민, 권*정, 권순부, 권승연, 권준이, 그대이름착스, 금자, 긍정, 기즈베, 길벗, 김*곤, 김*광수, 김*권, 김*규, 김*미, 김*미, 김*범, 김*석, 김*순, 김*연, 김*영, 김*영, 김*영, 김*우, 김*우, 김*운, 김*정, 김*종, 김*주, 김*준, 김*중, 김*진, 김*현, 김*형, 김*화, 김*희, 김권민진, 김귀창, 김대겸, 김동주, 김모드, 김민지, 김보미, 김비비, 김산희, 김상, 김성애, 김세훈, 김수경, 김연남, 김울, 김정민, 김주성, 김진, 짹, 꼬, 꾸, 꿈, 꿈달, 끼리, 나*영, 나영, 낙서, 난다, 날씨, 남*식, 남대, 남보리, 남지연 , 너구리, 너나없이평등하게, 너울, 노나, 노랑사, 녹두, 느낌, 다니주누, 다이, 달꿈, 달밀, 닷, 댄, 더지, 덕다운, 도경, 도균, 도균, 도로시, 도리스, 도영, 도토리, 돌멩이, 동시신호, 두*석, 두둥, 두레, 두부둑, 두수, 두호, 뒤패민, 듀, 들레, 디잔, 딘, 따뜻한겨울, 딱풀, 딱두꺼비, 라년, 라니, 라시, 라파, 란영, 랄라, 람보, 랏쏘, 랑곰, 럭키스타, 레놀, 레드션, 레몬밤시럽, 레몬커터, 레인, 로기, 로터스, 루술, 루시아, 루카, 류*, 류한수진, 리마, 리순, 릴리, 릴리안느, 림군, 마당, 마라, 마빋, 마암, 마이, 마이너리그, 만수, 맑음, 맵소사, 망명자, 망치야, 망트쇼콜라, 맹, 맹, 머루, 먼지, 메이, 면, 메, 모다른, 모랭이, 모리, 모리군, 모모, 모쟁이, 몬레이, 몽, 무나, 무냥, 무너, 무늬, 무무, 무엇, 무인, 무지, 문*란, 문호진, 물, 몽금, 미니, 미묘, 미숙이, 미어켓, 민텅, 민선, 민짜, 바다, 바람, 너구리, 박*건형, 박*권, 박*규, 박*균, 박*리, 박*명, 박*수, 박*연, 박*영, 박*우, 박*욱, 박*은, 박*주, 박*준, 박*진, 박*찬, 박*탁, 박*현, 박성준, 박찬유, 발칙한양, 배*정, 백종륜, 버섯, 베를린, 베티, 벤스, 변*우, 별, 별뎅이, 보리차, 볼펜, 봄밤, 봄새, 부영, 브리, 비니, 비니고모, 비렴, 비비새시, 비비안, 비오, 비타, 비텔, 빌, 에반스, 빌리, 뽕, 사과건빵, 사람이오, 사랑과인내, 사료값버는중, 사루, 사비, 사월, 사유, 사이몽, 상근, 상신, 상아, 상훈, 상훈, 새벽, 새봄, 샌드, 상차이, 서*석, 서누, 서리, 서우, 서울, 서울쥐, 서정, 서탐, 서한영교, 석*영, 선광, 선아, 선우두빈, 설수연, 섭섭, 세모, 세이지, 세인, 세화, 세휘, 셉킴, 소리, 소만, 소맥파, 소양, 소유,

소정, 손, 손*민, 손문수, 손지후, 솔안, 슴, 송*민, 송*옥, 송산, 송서진, 송지은, 수경, 수리, 수인, 수풀, 순재, 순정, 숨쉬미, 숲이아, 슈미, 시나, 시안, 시월, 시하브, 신*용, 신*정, 신디, 신범수, 신진호, 신희숙, 심*균, 심지, 씨니, 션, 슌, 쑤엠, 씨래, ㅇㅎㅈ, 아기매, 아더, 아라레, 아래아, 아리, 아이제트, 아치, 아침, 아편, 아홉, 안다다씩, 안시, 알R, 알랭, 알콜쌤, 애연, 앤디, 앨고, 야생형, 야지, 알리, 양*영, 양고기, 양반, 어깨꿈, 어나더, 언덕에, 언택콘, 엄*호, 엄태오, 엔진, 엘런, 엠제이, 여*진, 여름꽃, 여미울, 여우씨, 여의주, 연산군, 연재, 연훈, 열쫂, 영, 예안, 예원, 오*영, 오늘, 오동지, 오렌지쿠키, 오리, 오부리, 오소리, 온길, 용광로, 용바우, 용용, 우*남, 우리, 우연, 웃어라곰, 원근, 월, 유*라, 유결, 유니스, 유선우, 유식, 유앤버클, 유온, 유희, 윤*원, 윤*진, 윤가브리엘, 윤군, 윤수, 윤슬, 윤슬, 윤오, 윤진, 율원, 율화, 은결, 은박, 은지, 은혜, 이*경, 이*규, 이*민, 이*석, 이*섭, 이*성, 이*성, 이*수, 이*숙, 이*영, 이*영, 이*옥, 이*원, 이*인, 이*인, 이*재, 이*지, 이*진, 이*현, 이댄, 이드, 이미넴, 이민영, 이버, 이불, 이서영, 이수연, 이시가키스트, 이시아, 이안, 이연아, 이열, 이재성, 이준규, 이지, 이진수, 이진형, 이평과, 이하영, 일월, 임*경, 임*슬, 임마누엘, 임수, 자스민, 자유, 자유민주, 자이, 자크, 작은, 잔디, 장*권, 장*혜, 장*희, 장무기, 장영주, 장정현진, 재원, 잭런던, 전*식, 전*영, 정*수, 정*연, 정*진, 정*찬, 정*호, 정*훈, 정숙조신, 정을, 정인해, 정진영, 정치하마, 정현, 제니, 제니, 제람, 제리, 제이, 제이, 제이박, 제이쌍스, 제푸리, 제제, 조*애, 조*혜, 조나단, 조은소리, 조진영, 종로의 기적 만세!, 주디, 주형우, 준, 중간계, 지국, 지그리, 지모, 지미, 지민, 지연, 지오, 지용, 지우, 지운, 지월, 지윤, 지윤, 지운재, 지인, 지훈, 진, 진냥, 짜르, 쫂이, 쫂끼쫂끼, 찬, 참신, 창구, 창룡, 창석, 천*남, 천*호, 청년미소, 총총하, 최*, 최*경, 최*근, 최*림, 최*모, 최*재, 최*진, 최*찬, 최*혜, 최*화, 최*희, 최동원, 최석, 최홍조, 추*주, 팍, 카르, 카림, 카이, 카츠, 캉, 캉가루, 케로, 코스타가브라스, 코코샤넬, 콘딕, 콩부, 쿨링, 쿠사, 쿠키, 퀘르, 큐큐, 크하하, 클로이, 키케, 타리, 타오, 타이, 태랑, 태린, 터울, 테시, 토니, 토리, 통통이, 트와일라eat, 튼튼, 티미, 파니, 파랑새, 파벨, 파아란, 파이, 판이, 팽, 평화, 풀, 풍풍, 풍풍, 푸푸0719, 플루키,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필섭, 하늘, 하루, 하야치, 하영, 하지무, 하치, 한*선, 한*영, 한군, 한울, 한울타리, 한희, 해늘, 해님, 해리, 해밀, 해보, 해준, 허*범, 허니담, 허호, 현이, 헤메라, 현우, 형남, 헤인, 호, 호림, 호비, 호연, 호찬, 홍우열, 화홍, 황*규, 황*재, 황*지, 황두영, 황인찬, 황잔, 후니, 후추, 훈, 훈, 흑운, 희정, 흰고래, 히초

■ 25주년 특별 후원인

김*지, 김비, 김정*원, 김*욱, 민우, 병권, 윤*효, 이경, 장*민, 조나단, 조*혜, 조*도, 풀, 호수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후원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가입 시 닉네임을 적어주신 분들의 경우 닉네임으로 표기하였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의 두 번째 글자를 익명 처리하여 표기하였습니다. 명단에서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되신 경우나 닉네임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행성인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가 세상을 바꾼다!

트랜스젠더, 나답게 살 권리!
#성별정정 특별법 제정

평등한 사랑, 평등한 권리!
#동성결혼 법제화

HIV감염인 인권증진이
예방의 지름길!
#전파매개행위죄 폐지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할 권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교육에 다양성과 인권을!
#포괄적 성교육 기본법 제정

성소수자 노동자가
일터에서 평등할 권리!
#성소수자노동권 보장

성소수자 차별없는 군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